

추모사

古下 선생님 오는 5월 8일은 선생님의 제121주년 탄신일입니다.

그날이 마침 주말이 되어서 오늘 추모식을 거행하오니 관용(寬容)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선생님을 사모(思慕)하고 존경(尊敬)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선생님의 유택(幽宅)앞에 모여 선생님의 높으신 애국(愛國) 애족(愛族)의 숭고(崇高)한 정신(精神)을 회상(回想)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는 우리에게 희비(喜悲)가 교차하는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무역수지(貿易收支)면에서도 417억의 흑자(黑字)를 달성하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의 위치에 섰으며 또한 중동(中東)에서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와중에서도 강력한 경쟁 국가를 물리치고 원전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세계에 우리의 국격(國格)을 한차원 높였습니다.

그러나 북한(北韓)의 만행으로 인한 우리의 천안함(天安艦) 폭침(爆沈)사건과 연평도(延平島)에 대한 무차별 포격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국가안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북한(北韓)의 만행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금년에는 우방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방태세(國防態勢)를 획기적으로 개혁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주력하면서 위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契機)로 삼아 전력강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으나 그래도 잘 견뎌내고 역사발전의 진운과 더불어 기적(奇蹟)과도 같은 발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애국, 애족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建國理念)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선생님이 그리워집니다.

선생님의 독립정신이 특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제암흑기에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 문맹퇴치운동(文盲退治運動), 민립대학 설립운동(民立大學設立運動) 등을 펼치시고 동아일보(東亞日報)의 총수(總帥)로 민족정신(民族精神)을 대변(代辯)하시고 고취(鼓吹)하신 일, 해방직전 4차에 걸쳐 총독부(總督府)로부터 정권인수(政權引受) 교섭(交涉)을 받으셨으나 거절(拒絕)하셨던 일들은 범인

(凡人)으로서는 도저히 모방(模倣)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새 역사창조(歷史創造)의 원류(源流)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15광복(光復)을 맞이하여 선생님께서 건국창업(建國創業)의 이념(理念)을 밝히시고 민족진영(民族陣營)을 이끌어나가시는 한편, 동아일보 사장(東亞日報 社長)으로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침식을 잊으셨던 일, 해외망명 애국지사들의 환국영접(還國迎接)에 정성(精誠)을 바치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값진 역사적 사실(歷史的 事實)로 각인(刻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사실을 몇 가지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아끼시고 정열(情熱)을 쏟으셨던 동아일보(東亞日報)가 지난 4월 1일 창간 91주년을 맞이하여 김재호(金載昊)사장 체제(體制)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언론의 정도를 걸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TV종합편성채널인 "채널 A"의 개국과 함께 신문, 방송, 출판, 인터넷, 모바일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새롭게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담양에서는 정부와 전라남도 및 담양군의 협조로 선생님의 생가복원에 이어 후진들을 위한 역사교육장소인 "근대역사문화교육관(近代歷史文化敎育館)"의 개관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본 기념사업회에 관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 중에 있어 조만간 새로운 모습의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모시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에서 심사 중에 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본 기념사업회가 공익성기부금(寄附金)단체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생님 오늘은 존경(尊敬)하는 김병철(金炳喆)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선생님의 약전(略傳)을 봉독(奉讀)해 주셨습니다.

또한 윤두섭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과 남만우 광복회장(光復會長) 직무대행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박명림(朴明林)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협동과정 교수(延世大學校 大學院 地域協同課程 敎授)께서 「자강(自強)과 개혁(改革) 민족(民族) 민주(民主) 문화(文化)와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의 길」이라는 제목(題目)으로 추모강연(追慕講演)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를 대표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손(長孫)이신 송상현박사는 근래 국제사회의 분쟁이 격화되어 인류사회(人類社會)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촌각을 다투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장손(長孫)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어 선생님에 대한 송박사의 효심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대한 인물평(人物評) 중에서 “고하 동상건립위원회 유진오(兪鎭午)위원장님”의 제막식사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고하(古下)는 항일 반공 민주투쟁에 평생을 몸바치셨고 특히 동아일보가 창간(創刊)된 후 인촌 김성수선생(仁村 金性洙先生)과 함께 민족 언론, 민족교육, 민족문화, 민족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력, 오늘날 발전된 조국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선생의 그 굳은 지조, 웅대한 포부, 역사의 진운(進運)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과 애국정신은 그분의 업적과 함께 우리민족으로서 언제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생이 가신지 38년만에 그 어른의 동상을 이 어린이대공원에 세워 뒤를 잇는 세대에게 선생의 정신을 전하여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유진오(兪鎭午)선생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진운에 따라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지표를 향하여 굳게 뭉쳐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신 굳은 신념과 불굴의 도전정신, 독립정신이 그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하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富強)한 선진복지국가로 가꿔가겠으니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가해서 올릴 말씀은 본 기념사업회 창립시인 1994년부터 17년간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권이혁”이사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임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2011년 5월 6일

고하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